

## 편집위원 칼럼

소비자가 닭고기  
수입하라고  
주문하지는 않는다



김 태 환  
한국원종 대표이사

얼마 전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미국 코카콜라사의 주식 시가총액은 144조8,900억 원으로 국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를 포함하여 552개 상장기업을 사고도 돈이 남는 수준으로 발표하였다.

국내 보통주 '50% + 1주' 씩을 시가로 인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135조7,734억 원이기 때문에 코카콜라 보다 9조원 가량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국내 기업들의 가치가 매우 낮음을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산업적으로 양계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된다.

계란과 닭고기를 농협이 발표한 2002년도 소비자 소매가격을 기준할 경우 닭고기는 1조3천5백억 원대, 계란은 약 9천억 원대여서 총 2조3천억 원 전후 규모여서 국내 우량기업 41순위에 올라있는 건설 대기업 매출액 정도 수준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판매되는 라면 단일 시장 규모가 1조 3천억 원대에 이르고 있음을 볼 때 양계업은 종사자를 감안하면 비중은 너무도 낮은 편이다.

물론 완전가공 상품 모두를 포함시킨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국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것은 사실이다.

그나마 닭고기는 수입육이 소비 시장의 약 24% 정도를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육계생산기반 면에서 보아도 매우 빈약한 입장이다.

금년에는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닭고기를 한국으로 수출하는 태국이

나 중국, 미국에서도 같은 시기에 질병이 발생하여 수입이 중단됨으로써 2월 이후부터 국내 재고 감소로 가격이 상승하여 생산비는 넘고 있지만 5월부터 다시 수입육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언제 공급이 초과되어 가격이 하락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처지에 놓여있다.

그렇다고 일시에 양계산업의 시장규모가 커지기만을 기대하는 것도 아니다.

수입이 중단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회복된 것에만 고무되어 수입 재개 이후 벌어질 일들에 대해 너무 낙관하는 것 같아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실용계를 사육하는 농가나 생산된 산물을 유통하는 업체 모두는 이제부터는 양계산업이 시장에서 비중이 높아지도록 시장 장악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지난 5월15일 태국이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가 추가 발생이 없어 발생종료 선언을 한 가운데 6개월간 발생여부를 주시한 후 청정국으로 전환되면 닭고기 국내 반입은 원점으로 돌아가 육계산업의 경우 심한 허탈감과 가격 하락으로 농가 들은 물론 관련업체에 이르기까지 어려움을 겪게 될 여지가 높다.

시장규모가 적은 만큼 시장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면 적은 수입량이 반입되어도 가격 진폭은 매우 커지게 되는 것이 시장의 이치이다.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국민들이 소비를 기피하는 바람에 치킨 매장이 개점 휴업상태가 이르렀을 때 소비홍보비를 거출해서라도 닭고기 소비를 정상화시키자고 주문했던 업체들이 육계가격이 인상되자마자 수입닭고기 반입을 앞당겨줄 것을 요구했다는 소문에 접했을 때 참담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음은 필자만의 생각이 아니었을 것이다.

수급불안으로 닭고기 가격이 인상되었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닭고기를 수입 하라는 주문은 하지는 않는다.

늘 공급하는 입장에서 이익을 키우기 위해 국내산업이 처한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수입에 가세하기 때문에 결국 양계농가들은 생산기반을 잃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 발생도 잠잠해지고 있다.

발생 당시 위기감을 가지고 양계업계 발전 방안을 제시했던 마음가짐으로 모두가 시장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양계**